

# 집현전(集賢殿)의 학풍과 학술 활동\*

강 문 식\*\*

1. 머리말
2. 집현전 학풍의 특징
  - 1) 학풍 형성의 배경: 세종의 영향력
  - 2) 학풍의 특징: 정치적 실용의 강조
3. 집현전 관인의 학술 활동
  - 1) 경학과 성리학
  - 2) 역사학
  - 3) 시문학
4. 맺음말

## 1. 머리말

집현전은 1420년(세종 2)에 설치되어 1456년(세조 2) 혁파될 때까지 37년간 존속하였다. 조선 시대의 다른 학술기관들에 비해 그 존속 기간은 짧았지만, 집현전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집현전이 조선의 학술과 문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에서 활동했던 100여 명의 관인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수많은 연구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세종 대의 안정적인 정치 운영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조선시대 학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현'의 의미: 집현전 6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2020.11.27.~28.)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과 문화 발전에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 집현전이 혁파된 이후에도 집현전 출신 관인 중 상당수가 성종 때까지 관료로 활동하면서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동문선(東文選)』 · 『동국통감(東國通鑑)』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각종 서적 편찬을 주도함으로써 문물·제도 정비 사업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집현전에서 성장한 관인들은 15세기 국가적 학문 활동의 주역이었으며, 이 점에서 집현전의 학문적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이에 따라 집현전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sup>1)</sup>

15세기 조선의 학술과 문화에 끼친 집현전의 영향력은 집현전 관인들이 수행한 다양한 학술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집현전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의 바탕 위에서 『세종실록』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집현전에서 진행된 학술 활동의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집현전의 학풍이 어떤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학풍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 3장에서는 집현전 관인들이 수행한 학술 활동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집현전 관인들이 연구했던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하나의 논문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학술 연구의 핵심인 경학(經學)과 성리학, 집현전에 대한 세종의 영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학과 시문학 등을 중심으로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정리할 것이다.

## 2. 집현전 학풍의 특징

### 1) 학풍 형성의 배경: 세종의 영향력

집현전의 존속 기간 동안 집현전 관인으로 활동했던 학자들은 100여 명에 이

1) 집현전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崔承熙, 1966·1967 『集賢殿研究(上·下)』, 『역사학보』 32·33; 이재철, 1973 『集賢殿의 機能에 대한 研究』, 『인문과학』 30; 정두희, 1980 『集賢殿 學士 研究』, 『전북사학』 4; 강문식, 1998 『集賢殿 출신 官人의 學問觀과 政治觀』, 『한국사론』 39; 김남이, 1999 『집현전 학사와 15세기 관인문학』, 『한국고전연구』 5; 2004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손유경, 2018 『세종조 집현전 학사의 교육 양상 연구』, 『한문고전연구』 37(1).

른다. 집현전 관인들은 집현전을 매개로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함께 수행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집현전 관인이 되기 전에는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문 경향에서는 상이한 측면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학문 경향을 가진 집현전 관인들이 공동의 학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동일한 학문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력의 핵심이 바로 세종의 학문적 영향력이다.

집현전은 세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학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 대는 태조~태종 대의 창업기를 통해 기틀을 다진 새 나라 조선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물을 정비해 나가야 하는, 명실상부한 수성기(守成期)에 접어든 시기였다. 이에 세종은 제도와 문물의 정비라는 수성기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학문적으로 보좌해 줄 두뇌 집단이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종은 경연(經筵)에서 집현전 관인들의 진강(進講)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토론의 주제를 발의하는 등 경연을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집현전 관인들에게 관철했다.<sup>2)</sup> 또 세종은 집현전에서 서적을 편찬할 때 그 내용을 직접 점검하고 재결하여 서적의 내용이 최대한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고제(古制)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 주제를 대부분 세종이 직접 지시하였다.<sup>3)</sup>

1434년(세종 16) 1월에 집현전 직제학 설순(設循)은 사역원(司譯院)에서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집현전 관인 신석견(辛石堅)·남수문(南秀文)·김예몽(金禮蒙)을 집현전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초 이들에게 중국어를 학습하도록 한 것은 이들을 중국에 유학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였다. 하지만 중국 유학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단지 중국어만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설순은 이들을 집현전으로 복귀시켜 학문 연구에 전념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2) 정두희, 1983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일조각, 172-173면.

3) 강문식, 1998 앞의 논문, 95면.

하지만 세종은 중국어 학습을 겸하는 것이 학문 연구에 손실을 줄 리가 없으며, 또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중국어로 읽는다면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어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였다.<sup>4)</sup> 이는 일견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세종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이 집현전 관인들의 학문 연구를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강제했던 것은 아니다. 1434년 3월 세종은 예조에 내린 전지(傳旨)에서 집현전이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부터 집현전 관인들에게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서적을 그 낭청(郎廳)들의 재질에 따라 나눠 주어 강독하게 하고, 매일 강독한 분량을 기록해 두었다가 월말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sup>5)</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집현전 관인들의 ‘재질에 따라’ 각각 다른 서적을 나누어 주고 학습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세종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수성 군주의 과제, 즉 문물·제도의 정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 연구를 집현전에 요구했지만, 한편으로는 집현전 관인들 개개인의 특성과 장점으로 고려하여 학문 연구의 내용을 분담해 주었다. 이는 집현전의 학문적 다양성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종이 자신의 학문관과 국정 철학에 부합하도록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이끌어 갈 때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변계량(卞季良)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계량은 1420년 3월 집현전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 대제학에 임명되었다.<sup>6)</sup> 집현전 대제학은 전임관이 아니라 겸직이었기 때문에<sup>7)</sup> 기존의 집현전 연구에서는 변계량을 비롯한 집현전 겸직자들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김남이의 연구를 제외하면 집현전 관인 역임자를 정리할 때도 겸직자들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변계량은, 비록 집현전 전임관은 아니었지만,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 실

4)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10일.

5)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3월 17일.

6)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6일.

7) 집현전의 관직 중에서 영전사(領殿事, 정1품)·대제학(정2품)·제학(중2품)은 겸직이었고, 부제학(정3품) 이하부터 집현전의 전임관이었다[『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6일].

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그가 집현전 관인들의 학문 활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변계량은 집현전이 설치된 직후인 1420년 5월에 유관(柳觀)과 함께 집현전 관원들에게 시를 시험하였다.<sup>8)</sup> 또 1423년 5월의 기록에 따르면, 집현전 부제학 신장(申樞)이 변계량의 집을 출입하면서 문사(文詞)를 익혔으며, 변계량은 자신의 뒤를 이을 주문자(主文者)로 신장을 추천했다고 한다.<sup>9)</sup> 한편 변계량은 1425년 6월에 사학(史學)을 연구할 만한 관원을 추천하라는 세종의 명을 받고 정인지(鄭麟趾)·설순(契循)·김빈(金嬪) 등 3인을 추천하였다.<sup>10)</sup> 그리고 1426년에는 賜暇讀書에 선발된 권채(權綵)·신석견(辛石堅)·남수문(南秀文)에게 글 읽는 규범을 가르쳤는데, 이 또한 세종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sup>11)</sup>

이처럼 변계량은 집현전 관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그들의 학문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집현전에 대한 변계량의 학문 지도가 대부분 세종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세종은 자신의 학문관을 집현전 관인들에게 관철할 수 있는 책임자로 변계량을 지목했으며, 변계량 또한 그와 같은 세종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변계량은 세종이 집현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종의 학문적 영향력 속에서 형성된 집현전의 학풍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절에서는 집현전 학풍이 갖는 특징을 정치적 실용의 측면에서 살펴볼도록 하겠다.

## 2) 학풍의 특징: 정치적 실용의 강조

세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국(治國)의 방도를 찾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경서(經書)를 연구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하

8)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5월 25일.

9)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6월 23일.

10)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9일.

11)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2월 11일.

기 위함이다. 경서와 역사서를 깊이 연구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두루 알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워진다.”<sup>12)</sup>라는 세종의 말에는 정치적 실용성을 중시했던 그의 학문관이 잘 나타나 있다.

학문의 정치적 실용성과 관련하여 세종은 특히 역사학을 중시하였다. 세종은 1441년(세종 23)에 정인지(鄭麟趾)에게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편찬을 지시하면서 “좋은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前代)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의 자취를 보아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의 기록을 상고해야 한다.”<sup>13)</sup>고 하였다. 이는 세종이 국정 운영의 전범을 찾는 정치적 실용의 측면에서 역사학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문의 정치적 실용성 강조는 학문의 다양성으로 연결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은 천문·지리·의약·농학·병학·인쇄술 등 기술학 분야를 중시했는데, 이 또한 학문의 정치적 실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물·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국정 과제였던 당시 상황에서 기술학은 제도 정비와 민생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sup>14)</sup>

이상과 같이 세종은 정치적 실용을 강조하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집현전의 학풍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역사학 연구였으며, 집현전에서 편찬한 서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역시 역사학 관련 서적이다. 전근대 시대 역사학의 핵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서 정치적 교훈을 얻는 것이었으므로, 역사학 연구와 역사서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현전의 학풍에 정치적 실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집현전에서 편찬한 서적의 목록에 군사·지리·의약·농업·천문 등 다양한 기술학 분야 서적들이 포함된 것도 기술학을 중시했던 세종의 학문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12)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2월 8일.

13)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6월 28일.

14) 강문식, 앞의 논문, 94면.

15) 위의 논문, 96면.

집현전 관인들 또한 자신들의 학문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숙주(申叔舟)는 『가직설(稼織說)』에서 학문 활동을 농사와 베 짜는 일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씨를 뿌린 후에 김을 매고 김을 맨 후에 수확하는 것은 농부의 일이요, 누에를 쳐서 실을 뽑고 실을 뽑아 명주를 짜는 것은 길쌈하는 사람의 일이다. (중략) 선비의 학문도 이와 같다.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은 씨 뿌리고 누에 치는 것이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김매고 실 뽑는 것이며, 덕을 이루고 이름을 세워서 학문을 일에 베푸는 단계에 이르면 이것이 곧 곡식을 수확하고 명주를 짜는 것이다.<sup>16)</sup>

‘학문을 일에 베푼다(施之於事)’는 것은 곧 관료가 되어 정치 행위를 통해 자신의 학문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숙주는 학문 연구의 성과가 현실 정치에서 발휘되는 것이 학문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강희맹(姜希孟)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희맹은 『충주사고봉안기(忠州史庫奉安記)』에서 세조에 대해 “정일집중(精一執中)의 학문으로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정치를 했다.”<sup>17)</sup>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학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문의 내용을 정치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집현전 관인들이 ‘유리일치(儒吏一致)’를 학자-관료의 이상형으로 상정했던 것도 학문의 정치적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서거정(徐居正)은 유자(儒者)와 관리[吏]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자와 관리가 서로 필요함은 문(文)과 무(武)를 어느 한쪽도 폐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학문을 자신에게 온축하여 유자가 되고 일에 베풀으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니,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길이 아니다. (중략) 유(儒)에 근본을 두어 체(體)를 세우고 그것을 이(吏)에 시행하여 용(用)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sup>18)</sup>

16) 申叔舟, 『保閑齋集』 권16, 『稼織說』 “夫種而耘 耘而穫者 稼者之事也. 蠶而絲 絲而織者 織之者事也. (….) 士之學也 亦猶是也. 志于學者 種與蠶也 勤于學者 耘與絲也 以至於德成名立 施之於事 則是穫與機也.”

17) 姜希孟, 『私淑齋集』 권8, 『忠州史庫奉安記』 “恭惟我世祖大王 天錫勇智 拯溺亨屯 化家爲國 精一執中之學 博施濟衆之治 夙越千古 卓冠百王.”

18) 徐居正, 『四佳集』 文集 권5, 『送安君之任安峽詩序』 “儒吏之相須 猶文武之不可偏廢 蓋諸

이 말은 서거정의 학문관과 정치관을 집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서와 역사서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여 치도(治道)의 근본을 확립하고 이치(吏治)의 능력을 갖추어 학문을 실제 정치에 적용해서 백성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학자이자 관료라는 의미이다.<sup>19)</sup> 이는 곧 서거정이 현실 정치에서의 실용을 학문의 최종 완성으로 생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세종의 영향력 속에 형성된 집현전 학풍의 특징을 정치적 실용의 강조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학풍에 기반을 둔 집현전의 학술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다음 장에서는 집현전 관인들이 수행한 학술 활동을 ① 경학과 성리학, ② 역사학, ③ 시문학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3. 집현전 관인의 학술 활동

#### 1) 경학과 성리학

『세종실록』에 수록된, 집현전 관인들의 학문 활동 관련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 경학이나 성리학에 관한 연구 활동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으며, 집현전의 편찬 서적에서도 경학 및 성리학 관련 저술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 집현전 관인들의 문집에도 학술적인 저술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들의 경학 및 성리학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집현전이 경학 및 성리학 연구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집현전의 여러 기능 중에서 설치 초기부터 담당했던 고유 기능이 바로 경연(經筵)을 전담하는 것이었다.<sup>20)</sup> 그리고 경연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가 유가(儒

己而爲儒 施諸事而爲吏 非二道也. (….) 不可不本之儒 以立其體 施諸吏 以達其用.”

19) 강문식, 앞의 논문, 127면.

20) 崔承熙, 1966 앞의 논문, 21-23면.



家) 경전과 성리학 서적임을 고려한다면, 경학 및 성리학 연구는 집현전의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은 집현전 관인들이 평일에 글을 읽을 때는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지만 진강(進講)하는 글에 대해서는 힘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는 까닭으로 의심하는 곳이 많아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sup>21)</sup> 이는 집현전 관인들이 진강하는 글, 즉 경연 교재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게 연구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전하는 기록은 소략하지만, 경연의 주 교재인 경학 및 성리학 서적에 대한 집현전 관인들의 연구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430년(세종 12) 5월 18일의 『세종실록』 기사는 세종 대 집현전 관인들의 경서 학습 과정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당초 태종 대에 변계량(卞季良)이 집현전 관인들 중 슬기롭고 민첩한 사람 한두 명을 뽑아서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집석(輯釋)·혹문(或問)을 연구하게 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 중 한 명으로 권채(權採)를 천거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세종이 즉위한 다음 변계량이 다시 동일한 건의를 했고, 세종이 이를 수용하여 권채 등에게 『중용』과 『대학』을 학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430년 5월 당시 세종은 권채를 면대한 자리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 이후 권채 등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라고 한 변계량의 말을 권채에게 전하면서, 그 동안의 학습 경과에 관해 물었다. 이에 권채는 변계량의 말을 따라 3년 동안 『중용』과 『대학』을 공부했으며, 작년 봄부터는 『논어(論語)』·『맹자(孟子)』와 오경(五經)을 학습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하였다.<sup>22)</sup>

위 기사를 보면, 세종 대에 집현전 관인들 중 경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서를 학습하게 했고, 특히 사가독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3년 동안 『중용』·『대학』을 공부했고, 작년(1429년) 봄부터 『논어』·『맹자』와 오경 학습을 시작했다고 한 권채의 대답을 미루어 볼 때, 1426년경부터 집중적인 경서 학습이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21)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28일.

22)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18일.

23) 1426년은 권채가 신석견(辛石堅), 남수문(南秀文)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

한편, 1429년(세종 11) 4월에 세종은 강원도 감사가 새로 인출하여 올린 『사서대전(四書大全)』 50건 중 3건을 집현전에 내려주었다.<sup>24)</sup> 이는 집현전 관인들에게 사서(四書) 학습에 더욱 힘쓰도록 독려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종 대 말에 이르면 집현전의 경서 학습은 사서(四書)의 번역을 추진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세종실록』 1448년(세종 30) 3월 13일 기사에 실린 집현전 직제학 김문(金汶)의 줄기에 따르면, 김문이 경서와 자(子)·사(史)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사서(四書)를 역술(譯述)하도록 했었는데, 이때 김문이 갑자기 중풍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sup>25)</sup> 이렇게 되자 세종은 집현전의 건의에 따라 상주사(尙州使)로 재직 중이던 김구(金鉤)를 중앙으로 불러들여 김문을 대신해서 집현전에 나가 언문(諺文)으로 사서(四書)를 번역하게 하였다.<sup>26)</sup>

세종 대 말에 추진된 사서언해(四書諺解)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당시의 작업이 실제로 언해였는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거정이 지은 최항(崔恒)의 비명(碑銘)을 근거로 당시 추진된 사업은 사서 언해가 아니라 구결(口訣)이었으며, 김문·김구 외에도 최항과 서거정 등이 참여했음을 밝힌 바 있다.<sup>27)</sup> 하지만 당시 작업이 언해가 아니라 구결이라 하더라도 집현전 관인들이 세종 대 초부터 꾸준히 지속한 경서 학습을 통해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서 이해를 갖추었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구결이 언해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며, 구결을 위해서는 경서에 대한 나름의 충분한 이해와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 대부터 추진된 경서 구결이 일정 정도 열매를 맺은 세조 대에 들어서이다. 세조는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대한 구결을 추진하였는데, 『주역(周易)』과 『소학(小學)』은 자신이 직접 구결을 정하였고 나머지 경서들의 구결은 여러 관료에

었던 때이다[『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2월 11일]. 또 변계량이 사가독서 이후 권체의 학문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던 것을 고려할 때, 권체를 비롯한 집현전 관인들의 『대학』·『중용』 학습은 1426년의 사가독서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4)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22일.

25)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3월 13일.

26)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3월 28일.

27) 安秉禧, 1983 『世祖의 經書口訣에 대하여』 『규장각』 7, 3면.

게 분담시켰다.<sup>28)</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서 구결에 참여했던 관료들이 모두 집현전 관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당시 세조를 제외하고 경서 구결에 참여한 관료들 및 분담 경서는 다음과 같다.

정인지(鄭麟趾)-『시경(詩經)』, 정창손(鄭昌孫)-『서경(書經)』, 신숙주(申叔舟)-『예기(禮記)』, 이석형(李石亨)-『논어(論語)』, 성임(成任)-『맹자(孟子)』, 홍응(洪應)-『대학(大學)』, 강희맹(姜希孟)-『중용(中庸)』<sup>29)</sup>

경서 구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서 해석이 필요하고 경학 및 성리학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이 세조 대 경서 구결을 담당한 사실은 이들의 경서 연구와 이해 수준이 꽤 높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결국 집현전의 경학 연구가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현전 관인들의 성리학서 연구를 살펴보면, 당시 가장 중요했던 학습 교재는 『성리대전(性理大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리대전』은 1419년(세종 1)에 조선에 처음 수입되었으며,<sup>30)</sup> 세종 재위 중에는 1426년에 한 차례 더 수입되었다.<sup>31)</sup> 세종은 처음 수입된 직후부터 『성리대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이 1421년에 집현전 교리(校理) 유상지(兪尙智) 등에게 명하여 조용(趙庸)에게 가서 『성리대전』의 한 부분인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배우도록 했던 것은 그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sup>32)</sup>

1428년(세종 10) 3월 경연에 나간 세종은 새로 인쇄된 『성리대전』을 시독(試讀)해 보니 의리(義理)가 정미(精微)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 다음, 집현전 응교(應敎) 김돈(金墩)에게 마음을 써서 이 책을 연구해 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돈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쉽사리 연구하기 어렵지만 마땅히

28) 세조 대에 추진된 경서 구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병희, 위의 논문 및 김향수, 1987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규장각』 10을 참조.

29) 김향수, 위의 논문, 25면.

30)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2월 7일.

31)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1월 24일.

32)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8월 18일.

마음을 다해서 읽어 보겠다고 답했고, 세종 역시 스승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였다.<sup>33)</sup> 스승을 얻기 어렵다는 것은 당시 『성리대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자가 드물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 상황에서 김돈은 중국에서 온 사신단을 찾아가 『성리대전』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성리대전』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sup>34)</sup>

한편 세종은 1428년 윤4월에 경상도 감사 이승직(李繩直)이 『성리대전』 50부를 진상하자 2품 이상의 문신과 여섯 명의 대언(代言), 그리고 집현전의 박사(博士) 이상에게 이 책을 하사하였다. 2품 이상 문신과 정3품 대언에게만 하사하는 책을 집현전에는 정7품 박사에게까지 내려준 것은 집현전 관인들에게 『성리대전』 연구에 더욱 힘쓸 것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김돈을 비롯한 집현전 관인들의 『성리대전』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430년(세종 12) 8월에 경연에서 『율려신서』를 처음 강하였고,<sup>35)</sup> 이어 1432년 2월부터 1434년 3월까지 만 2년여 동안 경연에서 『성리대전』 강독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sup>36)</sup> 집현전 관인들의 『성리대전』 연구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세종 대 집현전 관인들의 경학 및 성리학 연구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해보았다. 이 시기 집현전의 경학 및 성리학 연구는 사서(四書)와 『성리대전』을 중심으로 내용의 충실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서(四書) 연구는 언해 및 구결의 추진으로, 『성리대전』 연구는 경연 진강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역사학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세종의 학문적 영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 연구는 집현전 설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집현전이

33)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2일.

34)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4월 16일.

3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23일.

36)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2월 6일; 권63, 세종 16년 3월 5일.

설치된 1420년(세종 2) 겨울에 세종은 집현전 관인들에게 새로 간행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오류를 교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작업은 1422년 겨울까지 만 2년 정도 지속되었다.<sup>37)</sup> 또 『자치통감강목』 교정이 마무리된 후인 1423년 3월에는 집현전 부제학(副提學) 신장(申穡), 봉사판사(奉常判事) 성개(成概), 좌헌납(左獻納) 정분(鄭芬), 집현전 응교(應敎) 유상지(兪尙智)·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범조우(范祖禹)의 『당감(唐鑑)』을 필사하게 하였다.<sup>38)</sup> 책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내용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책 전체를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업에 참여한 집현전 관인들은 『자치통감강목』과 『당감』의 내용을 깊이 숙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에서 중요한 학문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25년(세종 7) 11월에 세종은 변계량에게 역사학을 연구할 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변계량은 직집현전(直集賢殿) 정인지, 집현전 응교 설순(契循), 인동현감(仁同縣監) 김빈(金鑓) 등 세 사람을 천거하였다. 이에 세종은 김빈을 집현전 수찬(修撰)으로 임명하고, 세 사람에게 여러 역사서를 연구해서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했다.<sup>39)</sup>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점을 볼 때, 이때의 역사서 연구는 앞서의 교정이나 필사보다는 한 단계 심화된 연구, 즉 경연 진강(進講)에 대비하여 여러 역사서의 주석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는 연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를 강화하는 세종의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집현전 제학을 역임했던 윤회(尹淮)는 집현전 관인들에게 역사서를 읽게 하겠다는 세종의 의견에 대해 “경학(經學)이 우선이고 사학(史學)은 그다음이니, 사학만 전적으로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세종은 경연에서 옛 역사에 대해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며, 선비들이 말로는 경학을 한다고 하지만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sup>40)</sup>

37)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3월 24일.

38)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23일.

39)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9일.

이상과 같이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설치 초기부터 시작되어 점점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집현전 관인들은 『자치통감강목』을 비롯한 여러 역사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세종 대 중반에 들어 집현전에서는 더욱 심화된 역사학 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훈의(訓義)의 편찬이 바로 그것이다.

『자치통감훈의』는 1434년(세종 16) 6월에 편찬이 개시되어 1435년 6월에 완성되었다.<sup>41)</sup> 이 책의 편찬에는 윤희·권도(權蹈)·설순 등 전·현직 집현전 관인들이 참여했으며, 교정 작업도 김말(金末)·유의손(柳義孫)·이계전(李季甸)·최항(崔恒)·어효첨(魚孝瞻) 등의 집현전 관인들이 담당하였다.<sup>42)</sup> ‘훈의’는 “뜻을 풀다, 뜻을 설명한다.”는 의미로,<sup>43)</sup> 당시 집현전 관인들은 『자치통감』을 고열(考閱)하면서 본문 중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에 대한 해설을 여러 주석에서 뽑아 해당 구절의 끝에 붙이는 방식으로 『자치통감훈의』를 편찬하였다. 이때 『통감원위(通鑑源委)』·『통감집람(通鑑輯覽)』·『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의 『자치통감』 주석서들이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다.<sup>44)</sup> 이 점에서 훈의는 『자치통감』에 새로운 주석을 붙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주해들을 비교·검토하고 절충·종합하여 하나의 표준적인 주석을 만든 것이며, 이 점은 『자치통감강목훈의』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통감훈의』 편찬을 마친 후에는 『자치통감강목훈의』 편찬이 이어졌다. 『자치통감강목훈의』는 1436년(세종 18) 7월에 편찬이 시작되어 1438년 11월에 완성되었다.<sup>45)</sup> 이 책의 편찬은 집현전 부교리(副校理) 이계전과 김문 등이 담당했으며, 집현전 부교리 이사철(李思哲)과 수찬 최항 등이 교정을 하였다.<sup>46)</sup> 유의손

40)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9일.

41) 『자치통감훈의』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오항녕, 1998 『朝鮮 世宗代 『資治通鑑思政殿訓義』와 『資治通鑑綱目思政殿訓義』의 編纂』, 『태동고전연구』 15, 30-31면 참조.

42)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26일.

43) 오항녕, 앞의 논문, 29면.

44)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26일: 위의 논문, 30면.

45) 『자치통감강목훈의』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오항녕, 위의 논문, 32-34면을 참조.

46)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 7월 29일.

은 이 책의 서문에서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에 대한 여러 주해서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두 책의 혼의를 편찬했음을 밝히고, 이 두 혼의를 ‘사서(史書)의 대전(大全)’이라고 평가하였다.<sup>47)</sup> 이는 집현전 관인들이 『자치통감혼의』와 『자치통감강목혼의』를 지금까지 집현전에서 진행했던 역사학 연구의 성과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치통감강목혼의』의 완성 이후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이전까지의 연구는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 등 기존 역사서 및 그 주석들의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가 『자치통감강목혼의』 편찬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연구는 기존 성과의 기반 위에서 역사학의 현실적 목적에 부합하는, 즉 현실 정치에서 귀감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계서(鑑戒書) 성격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치평요람(治平要覽)』과 『명황계감(明皇誠鑑)』이다.

『치평요람』은 세종의 명에 따라 정인지·이계전·김문 등의 집현전 관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역사서로, 1441년(세종 23)에 편찬이 시작되어 1445년에 완성되었다.<sup>48)</sup> 세종은 정인지에게 이 책의 편찬을 명할 때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대(前代) 치란(治亂)의 자취를 보아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의 기록을 상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사적(史籍)을 고열(考閱)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할 만한 내용을 뽑아 책으로 만들어서 열람하기 편리하게 하여 후세 자손들에게 영원한 가르침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sup>49)</sup> 이

47) 『세종실록』 권74, 세종 18년 7월 29일.

48) 『치평요람』은 세종 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역사서의 하나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치평요람』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김경수, 1994 『治平要覽에 대한 연구』, 『호서사학』 21·22; 김순희, 2006 『治平要覽考』, 『서지학연구』 33; 오항녕, 2006 『조선초기 治平要覽의 편찬 배경과 성격』, 『한국사학사학보』 13; 2007 『조선초기 治平要覽의 편찬과 전거』, 아세아문화사; 김가람, 2014 『治平要覽의 편찬 및 그 목적』, 『한국사학사학보』 29; 2015 『治平要覽의 한국사에 대한 접근』, 『한국사학사학보』 31; 홍승태, 2017 『『治平要覽』에 반영된 宋儒의 史論과 史觀』, 『한국사학사학보』 35; 2019 『『治平要覽』에 수록된 『唐鑑』의 史論과 『帝範』』, 『중국사연구』 123; 강문식, 2020 『『治平要覽』 史論을 통해 본 집현전 관인의 정치관』, 『진단학보』 135.

는 『치평요람』의 편찬 목적이 과거 역사의 치란득실(治亂得失)을 참고하여 현실 정치 운영의 귀감을 찾으려는 데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세종은 1441년 9월에 호조참판 이선(李宣),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朴彭年), 저작랑(著作郎) 이개(李塏) 등에게 『명황계감』의 편찬을 지시할 때도 명황(明皇), 즉 당나라 현종(玄宗)이 처음에는 영주(英主)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만년에는 여색에 빠져 패망하였으니 처음과 끝의 다름이 현종 같은 자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 주자(朱子)가 현종이 기괴한 것을 좋아했던 사실을 『강목』에 기록한 것을 강조하고, 이런 내용은 국가를 맡은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황계감』 편찬을 명하였다.<sup>50)</sup> 이는 『명황계감』 역시 감계서의 성격이 강한 역사서임을 잘 보여준다.

이 밖에도 세종 대 중반 이후 편찬된 『장감박의소재제장사실(將鑑博議所在諸將事實)』<sup>51)</sup>과 『사륜전집(絲綸全集)』·『사륜요집(絲綸要集)』<sup>52)</sup> 등은 전형적인 역사서는 아니지만, 과거 역사에서 현실의 귀감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감계서 성격의 역사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종 대 중반 이후 집현전의 역사 연구에는 현실적인 목적이 강하게 투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집현전의 역사서 편찬은 기존의 중국 역사서 및 그 주석서에

49)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6월 28일.

50)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9월 29일.

51) 『장감박의(將鑑博議)』는 송나라 학자 대계(戴溪)가 편찬한 책으로, 전국시대 손무(孫武)부터 오대(五代) 시대의 곽승도(郭崇韜)까지 역대 명장들의 재능의 고하와 전략·지략의 장단을 논하였다. 『장감박의소재제장사실』은 『장감박의』에 수록된 장수들에 관한 사실을 역대 사서(史書)와 전기에서 뽑아 편집한 책이다. 남수문은 이 책의 발문에서 『장감박의』가 장수들의 귀감이 되는 책이지만 논의만 수록하고 사적을 신지 않아서 사실을 상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종이 집현전에 명하여 여러 자료에서 장수들의 사실을 초출·정리하여 이 책을 만들도록 했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9일]. 따라서 『장감박의소재제장사실』은 『장감박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장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52) 『사륜전집』은 집현전에서 세종의 명을 받아 진(秦)·한(漢)부터 명(明)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고(制誥)·조칙(詔勅)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며, 『사륜요집』은 정인지가 역시 세종의 명에 따라 『사륜전집』에서 중요한 내용을 초출하여 따로 편집한 책이다[『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9월 30일].



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정리하여 다시 편집한 결과물이었다.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찬술하는 것으로 확대됐는데, 『고려사(高麗史)』 개찬과 실록(實錄) 편찬이 바로 그것이다.

『고려사』 개찬은 세종이 재위 기간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직서주의(直書主義)를 강조했던 세종은 기존 『고려사』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번 개찬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423년(세종 5), 1431년, 1449년 등 수 차례에 걸쳐 개찬이 추진됐는데, 이때 집현전 관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먼저 1423년의 개찬에는 유관(柳觀, 겸임)과 윤회(尹淮)가 참여하여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를 편찬하였고, 1431년의 개찬에서는 권제(權蹏)·안지(安止)·남수문(南秀文) 등이 실무를 맡아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을 편찬하였다.<sup>53)</sup>

하지만 계속된 개찬에도 여전히 『고려사』의 내용이 불만스러웠던 세종은 1446년(세종 28) 10월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 응고 어효침(魚孝瞻)에게 사관들과 함께 사초(史草)를 자세히 조사하여 『고려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다.<sup>54)</sup> 그리고 1449년 1월에 정인지·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 등에게 『고려사』를 다시 개찬하도록 지시했는데,<sup>55)</sup> 그 결과물이 1451년(문종 1)에 최종 완성된 『고려사』이다. 『고려사』에 수록된 수사관(修史官) 명단에는 모두 32명이 실려 있는데 이중 집현전 관인 출신이 19명으로,<sup>56)</sup> 집현전 관인들이 『고려사』 편찬을 주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집현전 관인들은 세종 대 실록 편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423년(세종 5) 6월의 경연에서 세종은 소수의 사관만으로는 국정의 모든 일을 다

53) 한영우, 1994 『고려사·고려사절요』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 비평사, 124-125면.

54)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0월 11일.

55)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 1월 28일.

56) 1451년에 최종 완성된 『고려사』의 수사관 중 집현전 관인 출신은 다음과 같다.

정인지(鄭麟趾), 김조(金鈔), 이선제(李先齊), 정창손(鄭昌孫), 신석조(辛碩祖), 최항(崔恒), 노숙동(盧叔叀), 이석형(李石亨), 신숙주(申叔舟), 어효침(魚孝瞻), 김예몽(金禮蒙), 김순(金淳), 양성지(梁誠之), 이예(李芮), 김지경(金之慶), 이극감(李克堪), 윤기견(尹起畎), 조근(趙瑾), 윤자운(尹子雲).

기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다음, 집현전 관인은 항상 궐내에서 근무하므로 일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신장(申樞)·김상직(金尙直)·어변갑(魚變甲)·정인지·유상지(兪尙智) 등에게 춘추관(春秋館) 직책을 겸하도록 하였다.<sup>57)</sup> 집현전 관인들의 사관 겸직 경험은 이들이 국정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실록 편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현전 관인들의 실록 편찬은 1426년(세종 8) 완성된 『정종실록(定宗實錄)』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윤희와 신장이 동지관사(同知館事)로 참여하였다.<sup>58)</sup> 이어 1431년(세종 13)의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에는 윤희·신장이 동지관사, 안지가 기주관(記注官), 이선제·어효침이 기사관(記事官)으로 참여하였다.<sup>59)</sup> 또 집현전 관인들은 『태조실록(太祖實錄)』의 증보 편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442년(세종 24) 3월 세종은 『태조실록』에 태조의 즉위 전 행적이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안지와 남수문 등에게 나이 든 관원들을 방문하여 태조의 사적을 보완할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태조실록』은 1448년 6월에 증보 편찬되었는데, 이때 편찬을 총괄한 이가 정인지였다. 『태조실록』 부록에는 편찬책임자 정인지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안지·남수문 등이 증보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담당했던 것을 볼 때 실제로는 정인지 외에도 여러 집현전 관인들이 『태조실록』 증보 편찬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현전 관인들의 우리나라 역사서 편찬은 세종 사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451년 『고려사』가 완성된 후 김종서의 건의에 따라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편찬됐는데, 이때 참여한 수사관 28명 중 15명이 집현전 관인 출신이었다.<sup>60)</sup> 또

57)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6월 24일.

58) 『정종실록』 부록. 이 명단에는 동지관사로서 총 책임을 맡은 윤희와 신장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그 외의 편수관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59) 『태종실록』 부록.

60) 『고려사절요』의 수사관 중 집현전 관인 출신은 다음과 같다(겸임관 포함).

정인지(鄭麟趾), 허익(許翊, 겸임), 이선제(李先齊), 이계전(李季甸), 신석조(辛碩祖),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 김예몽(金禮蒙), 양성지(梁誠之), 이예(李茂), 김지경(金之慶), 유성원(柳誠源), 이극감(李克堪), 윤기견(尹起畎), 김질(金質).

세조 대에 추진된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찬을 주관했던 신숙주·최항·서거정·송처관(宋處寬)·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양성지(梁誠之)·임원준(任元濬)·이파(李坡) 등도 모두 집현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세조 사후에도 『동국통감』 편찬을 계속 주도하여 1476년(성종 7)에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1484년에 『동국통감』을 차례로 완성하였다.<sup>61)</sup> 실록 편찬도 마찬가지로 여서 세종~성종 대 실록의 편찬관 명단을 검토해 보면 집현전 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이처럼 집현전 관인들은 15세기 관찬사

61) 『동국통감』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1 『『東國通鑑』의 編纂 經緯와 歷史敘述』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35-179면을 참조.

62) 세종~성종 대 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집현전 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록	춘추관직	성명
세종 실록	감관사(監館事)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김조(金鈔), 이계전(李季甸), 정창손(鄭昌孫)
	동지관사(同知館事)	신석조(辛碩祖), 최항(崔恒)
	편수관(編修官)	박팽년(朴彭年), 어효침(魚孝瞻), 하위지(河緯地), 성삼문(成三問)
	기주관(記注官)	신숙주(申叔舟), 조어(趙晤), 이석형(李石亨), 김예몽(金禮蒙), 양성지(梁誠之), 이보흠(李甫欽), 이예(李芮), 유성원(柳誠源), 김지경(金之慶), 이극감(李克堪), 윤기견(尹起畎), 조근(趙瑾)
	기사관(記事官)	서강(徐岡)
문종 실록	영관사(領館事)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정창손(鄭昌孫), 이계전(李季甸), 김조(金鈔)
	동지관사(同知館事)	최항(崔恒), 하위지(河緯地)
	편수관(編修官)	어효침(魚孝瞻), 송처관(宋處寬)
	기주관(記注官)	이석형(李石亨), 이예(李芮), 유성원(柳誠源), 양성지(梁誠之), 김지경(金之慶), 이승소(李承召), 조근(趙瑾), 홍응(洪應), 이극감(李克堪), 서강(徐岡)
세조 실록	영관사(領館事)	신숙주(申叔舟)
	감관사(監館事)	최항(崔恒)
	지관사(知館事)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
	동지관사(同知館事)	이승소(李承召), 김수령(金壽寧)
	수찬관(修撰官)	김지경(金之慶)

서(官撰史書)와 실록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는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자치통감감목』·『당감』 등에 대한 교정과 필사 과정을 통해 역사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그다음에는 『자치통감』·『자치통감감목』에 대한 역대의 주해서들을 깊이 연구하고 어려운 구절에 대한 해설들을 뽑아 정리하여 훈의(訓義)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계서 성격의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집현전 관인들은 『고려사』를 비롯한 15세기 관찬사서와 실록 등 우리나라 역사서의 편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3) 시문학

시문학은 역사학과 더불어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서 세종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투영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1430년(세종 12) 5월 18일의 경연에서 권채와 경서 학습의 성과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두시(杜詩) 같은 것은 풍월(風月)을 읊조리는 것으로 유자(儒者)의 정식 학문은 아니지만, 이 또한 대강 익히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써서 두시(杜詩), 한유문(韓柳文) 등의 글을 모두 익혀 보는 것이 가하다.<sup>63)</sup>

라고 하여, 집현전의 연구 범위를 두시(杜詩)와 한유문(韓柳文) 등 시문학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집현전에서는 5월 27일에 「문신권학조건(文臣勸

예종 실록	영관사(領館事)	신숙주(申叔舟)
	감관사(監館事)	최항(崔恒)
	지관사(知館事)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
	동지관사(同知館事)	김수령(金壽寧)
	수찬관(修撰官)	김지경(金之慶)
성종 실록	지관사(知館事)	박건(朴健), 윤효손(尹孝孫)

63)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18일.

學條件)」을 마련하여 세종에게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서 본 세종의 지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권학조건」의 제2조에서는 집현전 녹관(祿官, 전임관)과 겸관(兼官)에게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여러 역사서, 그리고 한유문(韓柳文) 등을 적당히 분담해 주어서 학습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 제3조에서는 사중월(四仲月)마다 집현전 녹관과 겸관에게 표(表)·전(箋)·시(詩)·문(文) 등에서 하나의 글제를 내어 제술하게 하고 당상관이 집현전에 모여서 평점을 하도록 하였다.<sup>64)</sup> 이 조항들은 집현전 관인들의 학습에서 한유문(韓柳文)이나 제술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결국 시문 학습을 강조한 세종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35년(세종 17)에 집현전 대제학 이맹균(李孟暉)은 시학(詩學)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집현전은 당시 시학이 완전히 폐하여져서 대소 문사(文士)들이 시법(詩法)을 알지 못하니, 이는 개인의 재예(才藝)가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도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시학을 말기(末技)라 하여 전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65)</sup> 이어 시학 진흥을 위한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려의 진사과(進士科)를 회복하여 부(賦) 한 문제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 한 문제를 출제해서 각각 50인을 선발할 것.
- ② 진사시는 문과 식년(式年)에 거행하며 시골과 한성(漢城)의 선발 인원수는 생원(生員)의 예를 따를 것.
- ③ 진사시는 예조(禮曹)와 집현전(集賢殿)에서 주관하여 거행할 것.
- ④ 문과의 중장(中場)은 기존의 논(論)을 대신하여 부(賦)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 중에서 한 문제를 출제할 것.
- ⑤ 성균관(成均館) 생원은 경학(經學)을 익히는 여가에 『초사(楚辭)』, 『문선(文選)』과 이백(李白)·두보(杜甫)·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황정건(黃庭堅) 등 역대 제가(諸家)의 시를 곁하여 익히게 하며, 사부학당(四部學堂)과 외방 향교에서도 이에 준하여 강습(講習)할 것.

64)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5월 27일.

65)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26일.

- ⑥ 문신(文臣) 증직(仲直) 이하로서 봄·가을에 시를 짓는 데 응하는 자도 이백·두보·한유·유종원 등의 시를 곁하여 익히게 할 것.
- ⑦ 집현전 직제학 이하가 읽은 서책을 당상이 열흘마다 고찰하여 월말에 보고할 것.
- ⑧ 서연관(書筵官)도 집현전의 예를 따라 시를 배우고 짓게 할 것.<sup>66)</sup>

위 내용을 보면,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시의 회복이 시학 진흥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과 중장에서 논(論)을 대신하여 부(賦)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를 시험하도록 한 것 역시 과거 시험에서 시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학자들의 시문 학습을 독려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의 보고를 받은 세종은 이 내용을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검토하게 하였다. 이때 황희(黃喜)·허성(許誠) 등은 “사장(詞章)으로 가르침을 삼을 수 없습니다.”라며 불가함을 주장했지만, 세종은 이를 묵살하고 집현전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였다.<sup>67)</sup> 이는 집현전의 시학 진흥 방안이 세종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며, 더 근본적으로는 시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세종의 학문 경향이 집현전의 학문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이 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학을 진흥하고자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 실용’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사신 응대’라는 외교적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 관인을 역임했던 이승소(李承召)는 1458년(세조 4)에 세조에게 올린 글에서 사대교린(事大交隣)은 문장으로 응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중국이 조선을 중히 여기는 것은 예의(禮義)를 숭상하고 술직(述職)에 부지런하며 고금(古今)을 통해 문장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중국 조정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반드시 박학(博學)하고 문장을 잘하는 자를 가려서 보낸다고 하면서, 이를 고려할 때 문장이 비록 하찮은 재주[末枝]이지만 폐기할 수 없으며 세종이 일찍이 연소(年少)하고 영민(英敏)한 문신을 선발하여 산방(山房)에서 독서하게 했던 것도 바

66)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26일.

67)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26일.

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68)</sup> 이와 같은 이승소의 주장은 세종 대 시문학 강조와 진흥의 중요한 목적이 ‘중국 사신 응대’라는 외교적 필요성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집현전 관인들의 시문 학습은 저술로 이어졌는데, 한유문(韓柳文)과 두시(杜詩)에 대한 주석서의 편찬이 그것이다. 먼저 1438년(세종 20)에 세종이 집현전에 명하여 한유문(韓柳文)의 주석을 찬집하게 했는데, 이때 참여한 집현전 관인은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와 직제학 김빈(金鑣), 박사 이영서(李永瑞) 등이다. 당시 남수문이 쓴 발문에 따르면 한유(韓愈)의 글은 주희(朱熹)의 교정본을 위주로 하면서 『오백가주(五百家注)』와 『한순고훈(韓醇誥訓)』의 내용으로 보충했으며, 유종원(柳宗元)의 글은 『증광주석음변(增廣注釋音辯)』을 위주로 하고 역시 『오백가주』와 『한순고훈』으로 증보했다고 하였다.<sup>69)</sup>

또 세종은 1443년(세종 25)에 집현전에 명하여 두시(杜詩)에 대한 여러 주석들을 참고·교정하여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sup>70)</sup> 그리고 이를 위해 세종은 두시(杜詩)에 관한 제가(諸家)의 주해서들을 구입하도록 명하였으며,<sup>71)</sup> 또 고려 말에 이색(李穡)·이승인(李崇仁)과 교류하면서 시학을 배운 회암사(檜巖寺) 주지승(住持僧) 만우(卍雨)를 흥천사(興天寺)로 이주(移住)시켜서 두시(杜詩) 주해 편찬에 자문하도록 하였다.<sup>72)</sup>

이상과 같이 집현전에서는 시문학을 중시했던 세종의 영향을 받아 시문학 진흥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시문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했으며, 이는 한유문(韓柳文)과 두시(杜詩)의 주해서 편찬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68) 『세종실록』 권12, 세조 4년 4월 24일.

69)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1월 30일. 이때 편찬된 한유(韓愈) 저술의 주해본이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으로, 갑인자(甲寅字)로 간행되었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은 정재철, 『한유 문 전범의 형성과 인식』(2015, 『한국한문학연구』 60)을 참조.

70)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21일. 이때 편찬된 두시 주석이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이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은 노요한, 『『찬주분류두시』의 편찬과 주해 방식』[2019, 『어문연구』 47(3)]을 참조.

71)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21일.

72)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27일.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15세기 조선의 학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집현전의 학풍 형성 배경과 그 특징, 그리고 집현전 관인들이 수행했던 학술 활동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제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집현전 관인으로 활동했던 100여 명의 학자들은 집현전에 들어오기 전에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서로 다른 학문 경향을 가진 학자들이 집현전을 매개로 공동의 학술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동일한 학문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동력의 핵심이 바로 세종의 영향력이었다.

수성기의 군주였던 세종은 ‘제도와 문물의 정비’라는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좌해 줄 두뇌 집단이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은 자신의 학문과 통치 철학에 부합하도록 집현전의 학술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했다. 세종은 학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국(治國)의 방도를 찾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학문의 정치적 실용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의 학문관은 집현전의 학풍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집현전의 학술 활동에서 역사학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점, 집현전의 편찬 서적에 다양한 기술학 분야 서적들이 포함된 점, 그리고 집현전 관인들이 학문 연구의 성과가 현실 정치에 발현되는 것을 학문의 완성으로 생각했던 점 등은 정치적 실용을 중시한 세종의 학문적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현전의 학술 활동 중 경학 및 성리학 연구는 비록 문헌상의 기록은 소략하지만, 사서(四書)와 『성리대전』의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현전 관인들의 경연 준비 과정은 경연 교재로 사용된 경서와 성리학서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 결과 사서(四書) 연구는 세종~세조대의 언해(諺解) 및 구결(口訣) 추진으로, 『성리대전』 연구는 경연 진강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학과 시문학은 집현전에 대한 세종의 영향력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분야이다. 세종은 좋은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 시대의 역사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관점에서 집현전의 역사학 연구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집현전에서는 『자치통감훈의』, 『자치통감강목훈의』, 『치평요람』 등 다양한 성격의 역사서들이 편찬되었다. 또 집현전 관인들은 15세기 관찬사서와 실록 등 우리나라 역사서의 편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세종은 '중국 사신 응대'라는 외교적 필요에서 시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집현전에서는 세종의 지시에 따라 시문학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집현전 관인들의 시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한유문(韓柳文)과 두시(杜詩)에 대한 주해서(註解書) 편찬은 집현전에서 이루어진 시문 연구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주제어 : 집현전, 세종, 경학, 성리학, 역사학, 시문학

투고일(2021. 1. 31), 심사시작일(2021. 2. 17), 심사완료일(2021. 3. 4)

〈Abstract〉

## A Study on the Academic Trends and Activities of Jiphyeonjeon

Kang, Moonshik \*

King Sejong established Jiphyeonjeon in order to carry out his national task of the organizing of systems and culture reliably. And he led the academic activities of Jiphyeonjeon in accordance with his academic and governing philosophy. King Sejong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learning was to find a way of governing the country and apply it to state affairs and from that point of view, he emphasized the political practicality of learning. This kind of scholarly view of King Sejong grea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academic tradition of Jiphyeonjeon. As a result the study of history was done actively and a wide variety of books about Technology were compiled in Jiphyeonjeon

Among the academic activities of Jiphyeonje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Neo-Confucianism was conducted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Four Books and Xinglidaquan(Collected Works on Human Nature and Principle). The study of the Four Books led to the works of oral instructions and vernacular explication, and Xinglidaquan was used as an important textbook of royal lecture in the reign of King Sejong.

History and poetry are the academic fields where King Sejong's academic influence on Jiphyeonjeon is most clearly identified. King Sejong believed that in order to conduct good politics, he should make an example of the history of the previous era. And from that point of view King Sejong encouraged the officials of Jiphyeonjeon to study history. As a result, various kinds of history books were compiled in Jiphyeonjeon, including Jachi tonggam hunui, Jachi tonggam gangmok hunui, and Chipyeong yoram. In addition, the officials of Jiphyeonjeon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compilation of Korean history books such as Goryeosa and the Annals in 15th century.

Meanwhile, King Sejo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because of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oongsil University.

diplomatic need to respond to Chinese envoys. In response, Jiphyeonjeon played a leading role in preparing various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poetry and literature under the direction of King Sejong. And the study of poems by the officials of Jiphyeonjeon was actively conducted. The compilation of annotation books on the writings of Han yu and Liu Zongyuan and the poems of Du fu were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s of the study of literature in Jiphyeonjeon.

**Key Words** : Jiphyeonjeon, King Sejong,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Neo-Confucianism, History, Poetry